

## 白光弘의 冬至賦에 나타난 自我의 意識

이 구 의\*

### 차 례

1. 머리말
2. 「冬至賦」의 生成背景
3. 「冬至賦」의 形式的 特性
4. 「冬至賦」의 構成과 意味
  - 4.1. 도입부(導入部)
  - 4.2. 전개부(展開部)
  - 4.3. 결말부(結末部)
5.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고는 조선 중기의 학자인 백광홍(白光弘: 1522~1556)의 「동지부(冬至賦)」에 나타난 구성과 의미, 자아의 지향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冬至賦」는 1552년 임금의 명에 의하여 지었다. 이 「동지부」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부는 과부(科賦)의 형태로 『주역』의 이론에 따라 48연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한 연의 글자 수는 12자가 기본이다. 이는 12소식(消息)과 관련 있다. 또 허사(虛辭)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는 고부(古賦)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셋째 이 부에는 일정한 운(韻)이 없고 한 구(句)의 평측(平仄)도 일정하지 않다. 넷째 이 부(賦)는 크기는 3단 구성이지만, 세분(細分)하면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동지부」의 도입부는 십이소식(十二消息)과 우주(宇宙)의 운행(運行)을 묘사하였다. 이 도입부는 십이소식(十二消息)에 맞추어 12연으로 구성하였다. 1년 12달의 생성 변화의 이치가 이 단락에 들어 있다. 전개부는 다시 다섯 단락으로 이루어졌다. 그 구성은 각 단락이 6연으로 육합(六合)의 원리를 담고 있다. 첫째 단락은 육합(六合)의 운행과 영축(盈廔)의 이치, 둘째 단락은 소식(消息)을 통한 동지의 의미, 셋째 단락은 천심(天心)과 안심(人心)의 합일(合一), 넷째 단락은 자연의 동지(冬至)와 마음의 동지, 다섯째 단락은 훈리자(訓理者)로서의 하늘과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허령(虛靈) 지각(知覺)을 통하여 양심(良心)을 가지는 것이 동지의 의의라고 이 부(賦)에서 강조하고 있다.

\* 경북대학교

결말부의 구성이 6연으로 되어 있다. 앞의 서두부(序頭部)에서 동지에 해당하는 지뢰(地雷) 복괘(復卦)에 대하여 우주의 운행을 묘사하였다면, 이 결말부에는 동지를 맞아 임금에 대한 자아의 당부, 자아의 각오, 임금에 대한 송축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임금에 대한 당부는 임금이 양심(良心)을 가지고 인의정치를 펼쳐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핵심어 : 동지(冬至), 소식(消息), 육합(六合), 양기(陽氣), 양심(良心), 왕도(王道)

## 1. 머리말

본고는 조선 중기의 학자인 백광홍<sup>1)</sup>의 「동지부(冬至賦)」에 나타난 구성과 의미 나아가서 이 부(賦)에 나타난 자아의 지향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백광홍(白光弘, 1522~1556)은 자는 대유(大裕), 호가 기봉(岐峯), 본관이 해미(海美)로 전라남도 장흥(長興)에 있는 사자산 아래의 기산(岐山)<sup>2)</sup>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백세인(白世仁)이며 어머니는 광산 김씨로 첨정(僉正) 김광통(金廣通)의 딸이다. 그의 친동생 백광안(白光顔)·백광훈(白光勳)과 사촌 동생 백광성(白光城) 등 한 집안 4형제가 모두 문장으로 칭송을 받았다.

기봉(岐峯)이 어려서는 태어난 곳의 봉명재(鳳鳴齋)라는 서당에서 수업하였다. 그 뒤 시산(詩山, 지금의 태인)에 있던 이항(李恒)에게 가서 공부하였다. 이 무렵에 신잠(申潛)과 교유하면서 학문과 철학을 논하였다. 그의 나이 32살 때인 1553년(명종 8) 시부회(詩賦會)에서 장원하였다. 그 때 지은 부가 바로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동지부(冬至賦)」이다. 그는 또 그의 나이 35살 때인 1555년(명

1) 백광홍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를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岐峯 白光弘 記念事業會, 岐峯先生 學術 發表會, 2004.

장희구, 「岐峯 白光弘의 詩文學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4.

백수인, 「岐峯 白光弘의 생애와 문학세계」, 岐峯 白光弘 記念事業會, 2004.

허경숙, 「백광홍의 현실인식과 문학세계」, 『溫知論叢』18, 溫知學會, 2008.

이자영, 「기봉 백광홍의 시세계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외하면 그에 대한 연구가 주로 개괄적인데 머물렀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동지부」에 대한 연구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행정구역으로는 전라남도 장흥군 안양면 기산리이다.

중 10) 봄에 평안도평사가 되어 관서지방의 절경과 생활상·자연풍물 등을 읊은 기행가사(紀行歌辭)의 효시인 「관서별곡(關西別曲)」을 짓기도 하였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그가 한문학뿐만 아니라 국문시가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는 그가 일찍이 김인후(金麟厚)·이이(李瑀)·신잠(申潛)·기대승(奇大升)·임억령(林億齡)·정철(鄭澈)·양응정(梁應鼎)·최경창(崔慶昌) 등과 같은 당시의 대문장가들과 교류하였다<sup>3)</sup>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기봉이 「동지부」를 지어 영호남 문사들이 겨루는 시부회(詩賦會)에서 장원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문학적 소질이 뛰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으로는 이 부가 당대 사부의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점에서 그의 「동지부」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동지부」의 형식, 내용,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기산의 정신세계를 규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대 사부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이 「동지부」의 위상이 더욱 굳어지게 될 것이다.

본고를 진행하는 방법은 동서양의 비평이론을 망라한 인문주의 비평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고의 대상은 『한국문집총간』(續3)에 실려 있는 「동지부」(『岐峯集』 卷1)를 대본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문헌자료도 활용하기로 한다.

## 2. 「冬至賦」의 生成背景

기봉(岐峯)이 이 「동지부」를 지은 배경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원집(原集) 자주(自註)를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동지부」는, 공이 가정(嘉靖) 임자년(1552, 명종 7)에 과거에 급제하고, 그 해 11월에 임금이 성균관에서 영·호남의 문신들에게 재주를 겨루게 하였다. 공이 이 부(賦)로 장원을 차지하여, 임금이 『선시(選詩)』 10권을 하사하였다.<sup>4)</sup>

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대백과사전』, 白光弘 條 참조

4) “冬至, 嘉靖壬子登科, 其年十一月, 上命嶺湖文臣較藝于泮宮. 公以此賦居魁, 御賜選詩十卷.” 白光弘, 앞의 책, 같은 곳

위 글을 보면 기봉이 이 「동지부」를 지은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賦)를 지은 시기는 그가 대과에 급제하고 난 뒤였다. 일반적으로 대과 응시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부를 지었다. 이는 과거 시험의 과목으로 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멀리 신라시대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에서도 과거 시험과목 가운데 하나가 부를 짓는 일이었다. 이러한 전통이 고려, 조선에까지 전승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과거에는 이 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일명 과부(科賦)라 하여 엄격한 격식은 없었지만 이 부가 과거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가 대과에 급제하고 난 뒤 당시 임금인 명종이 명령을 내렸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호남의 문신들에게 재주를 겨누라는 것이었다. 재주를 겨누는 방법이 부를 짓는 일이었다. 이 행위를 나쁘게 보면 두 지역 출신 문신(文臣)들 사이에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좋게 보면, 두 지역의 신하들이 선의(善意)로 경쟁하여 문풍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단정할 수 없지만, 한 나라의 군주가 그 밑의 신하들에게 서로 적대감이 들게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곧, 명종이 두 지역 문신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을 시켜 문풍을 발전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때 기봉이 이 「동지부」를 지어 여러 명의 문신들 가운데 1등을 차지하였다. 아무리 작은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1등 하기는 쉽지 않다. 더군다나 내로라하는 대과 급제자들이 모여 경쟁하여 수석을 차지하였다는 것은 그 문재(文才)가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한다.

한편 동지(冬至)는 전제군주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다. 그것은 하늘의 문이 처음 열리는 날이 바로 동지이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은 하력(夏曆)으로 사람이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夏)나라 책력(冊曆)은 12지지(地支) 가운데 세 번째 지지인 인월(寅月)을 정월로 잡았다. 하루를 두고 보면 자시(子時: 23~01時)에 천문(天門)이, 축시(丑時: 01~03時)에는 지문(地門)이, 인시(寅時: 03~05時)에는 인문(人門)이 열린다. 이를 12달인 1년에 대입시키면 동지는 천문(天門)이 처음 열리는 달의 첫째 날이다. 동지가 들어 있는 달은 음력으로 11월이다. 음력 11월을 다른 말로 지월(至月)이라 한다. 예부터 우리 선

조들은 이 동지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국고전번역원의 db에서 ‘동지’를 검색하여 보면 총 8974회가 나온다. 그 가운데 『조선왕조실록』에 1502회,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724회, 『일성록(日省錄)』에 555회,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에 2918회나 나타난다. 이 숫자를 미루어 보면 궁궐에 거주하는 임금이나 학식이 있는 선비들이 이 ‘동지(冬至)’라는 단어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동짓날 자시반(子時半)에 한 해의 운세가 바뀌어 새해가 이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동짓날이 되면 순음의 괘(坤卦)에 하나의 양효(陽爻)가 생겨 『주역』의 24번째 괘(卦)인 지뢰(地雷: 坤震) 복괘(復卦)가 된다. 동짓날이면 처음으로 양기(陽氣)가 싹트기 시작한다. 양기가 차갑지 않고 따뜻하다. 따뜻한 기운이 처음으로 나타난 때가 동짓날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없다. 동지 때 양기가 들어오지만, 해가 가장 짧은 날이라 추위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한다. 이것은 하지(夏至)가 되면 처음으로 음기가 들어오는 것과 그 이치가 같다. 하지가 되면 순양(純陽)의 괘에 하나의 음효(陰爻)가 생긴다. 이 괘가 『주역』의 44번째 괘인 천풍(天風: 乾巽) 구괘(姤卦)이다. 이 구괘(姤卦)와 대(對)가 되는 괘(卦)가 복괘(復卦)이다. 「동지부」의 첫 단락에서도 자아가 이 점을 묘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에 앞서 이 「동지부」의 형식적 특성을 들어 보기로 한다.

### 3. 「冬至賦」의 形式的 特性

첫째 이 부는 과부(科賦)의 형태로 모두 48연(聯)으로 이루어졌다. 48이라는 숫자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48은 『주역』의 도전괘(倒顛卦)와 부도전괘(不倒顛卦), 책수(策數)에서 따왔다. 『주역』의 64괘 가운데 8괘가 부도전괘(不倒顛卦)이다. 나머지 56괘는 도전괘(倒顛卦)이다. 도전괘는 서로 뒤집을 수 있으니 실제 운행하는 괘는 56을 2로 나눈 28괘가 된다. 여기에 도전괘 8을 더하면 8+28, 곧 36이다. 이 숫자에 소양(少陽) 또는 소음(少陰)의 책수(策數) 12를 더하

면 48이 된다. 노양(老陽)과 노음(老陰)은 책수가 24이고, 소양(少陽)과 소음(少陰)의 책수가 12이다. 그가 소양 또는 소음의 책수를 택한 것이 우연이 아니다. 동지에 해당하는 괘(卦)가 『주역』의 24번째 괘인 지뢰(地雷) 복괘(復卦)가 소양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복괘는 양기가 처음 돌아나는 형상이다. 1년의 12달이 이 동지, 곧 복괘에서 시작한다. 복괘는 초구효(初九爻)만 양효(陽爻)이고 나머지 다섯 효가 음효(陰爻)로 이루어졌다. 또 12달을 의미하는 소식(消息)괘에 맞추어도 그 숫자가 12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면 백광홍이 이 「동지부」를 48연으로 구성한 것이 결코 우연(偶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한 연의 글자 수는 12자가 기본이다. 몇 구절에서는 한 두 글자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대체로 한 연의 구성은 ○○○+△+○○(○는 實辭, △는 虛辭)이 중복된 형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 중복된 형태도 가끔씩 나타난다. 48연 안의 출구(出句)와 대구(對句)에 대부분 허사(虛辭)가 들어 있다. 이(而: 19)·지(之: 46)·어(於: 18)·혜(兮: 4)·호(乎: 3) 등이 그것이다. 이 허사는 초기의 부체에서 많이 나타난다. 전국시대 굴원(屈原)의 『초사(楚辭)』를 보면 허사 가운데 ‘혜(兮)’ 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허사가 다양하게 등장하지는 않는다.

셋째 이 부에는 일정한 운(韻)이 없다. 구(句)의 평측(平仄)도 일정하지 않다. 48구 가운데 짝수 구에 압운하고 있는데, 운자가 일정하지 않고 여러 운자(韻字)를 번갈아가며 쓰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운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운이 바뀌고 있다.

넷째 이 부(賦)에서 용사(用事)를 많이 하고 있다. 빈도수로 보면, 『주역』·『서경』·『시경』·『맹자』 등의 경서에서의 용사가 많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하였던 두보(杜甫) 시에서 용사하기도 하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 한다.

다섯째 이 부는 크게는 서사(序詞), 전개(展開), 결말(結末)의 3단 구성이지만, 이를 세분하면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주역』의 64괘 가운데 24번째 괘인 지뢰(地雷) 복괘(復卦)의 칠일내복(七日乃復)의 의미와 상통한다. 단락의 구성을 두고 보더라도 자아(子我)의 의도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짓날에 한 양이 처음 생기[一陽始生]는 형상이 복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

금부터 각 단락의 구성과 의미, 이에 나타난 자아의 지향의식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 4. 「冬至賦」의 構成과 意味

##### 4.1. 도입부(導入部): 十二消息과 宇宙의 運行

이 도입부는 48연 가운데 12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가 도입부를 12연으로 이룬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2소식(消息)다. 1년 12달의 생성 변화의 이치가 이 단락에 들어 있다. 한편 이 도입부는 이 작품 전체의 서론부분으로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우주 운행을 묘사하고 있다. 곧 자아의 안목이 편협한 것이 아니라 광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해 논의하여 보기로 한다.

惟乾坤定位乎上下	하늘 땅 아래 위에 자리 정하여,
二氣往來而橐籥	음양 풀무질 하듯 서로 오가네.
茲有消而必長	사그라지면 반드시 다시 자라네,
亦既剝而乃復	이미 깎여서도 곧 되살아난다네.
窺四時之錯行	네 계절의 운행이 맞물려 가니,
竊獨感此冬至	다만 홀로 동지 때 느낌이 이네.
際衆陰之斯極	몹 음(陰)이 이때 지극하였지만,
會一陽之兆始	한 양(陽)이 시작될 조짐 있었지.
律黃鍾之應節	울력은 황종의 절기에 와 있고,
星斗柄之建子	별자리 두병의 건자에 다달았네.
日行極於南斗	태양이 남두성에서 운행 다하고,
月御貞於黑道	달은 흑도에서 곧게 움직인다네.

5) 여기서 자아는 서정적 자아(persona)를 가리킨다. 아래도 이와 같다.

먼저 첫째 연에서 여섯째 연까지를 보면, 첫째 연에서는 건곤(乾坤)이 위아래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하늘과 땅은 우주이다. 이 우주에서 보이지 않는 태극이 생긴다. 태극에서 음양, 곧 양의(兩儀)가 생긴다. 둘째 연이 음과 양이 줄어들거나 생겨나서[消息] 사상(四相)과 팔괘(八卦)가 생긴다. 이 팔괘가 사그라지기도 하고 되살아나기도 하여 박괘(剝卦)와 복괘(復卦)가 생긴다. 산지(山地: 艮坤) 박괘는 『주역』 64괘 가운데 23번째 괘이며 지뢰(地雷: 坤辰) 복괘는 24번째 괘이다. 박괘와 복괘는 도전괘(倒顛卦)이다. 곧 박괘를 뒤집으면 복괘가 되고 복괘를 뒤집으면 박괘가 된다. 셋째 연에서 보면, 자아가 사계(四季)의 운행이 서로 맞물려 간다고 하였다. 천지의 운행이 일회성이거나 단절된 것이 아니다. 천지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운행하고 있다. 네 계절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동지이다. 동짓날 자시(子時) 반(半)에 한 해의 운행이 바뀐다.<sup>6)</sup> 동짓날이 되면 넷째 연에서 묘사하였듯이 순음효(純陰爻)로만 이루어진 중지(重地) 곤괘(坤卦)에서 한 양효(陽爻)가 처음 생겨나는 지뢰(地雷) 복괘(復卦)가 된다. 날씨가 가장 추울 때 벌써 따뜻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다섯째 연에서 이 때, 곧 동짓날은 울력으로 황중 때이고 별자리는 북두칠성 가운데 자루가 되는 별인 두병(斗柄)에 와 있다. 여섯째 연에 가면, 자아가 이 때 태양은 남두성(南斗星)에서, 달이 흑도(黑道)에서 운행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자아가 첫째 연에서 여섯째 연까지에 걸쳐 천지와 해·달·별이 서로

6) 주역(周易) 64괘(卦) 가운데 한 양효[一陽]가 처음 생기는 지뢰(地雷) 복괘(復卦)가 동짓날 자시(子時) 반(半)에 시작된다는 주장은 송(宋) 나라 소옹(邵雍)의 「자반설(子半說)」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이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학자인 계곡(谿谷) 장유(張維)의 「한 양이 처음 생기는 날에 흥에 겨워 지음[陽生日漫吟]」(『谿谷集』 卷29)이라는 두수의 시가 있다.

半夜一聲雷	한밤중에 울리는 천둥소리에,
頑陰劃已開	완악한 음획 떨어져 나갔도다.
天心真可見	하의 마음 진정 알 수 있나니,
節候暗相催	모르게 착착 진행되는 절후네.
煮豆清晨粥	팔죽을 끓여 먹는 동짓날 아침,
吹葭玉管灰	울관 속 갈대 재 절로 날아가.
鷓班阻朝賀	줄 지어 서 하례도 못하는 몸,
衰疾自生哀	쇠하고 병든 몸 절로 슬퍼지네.



때맞추어 운행하여 생성 변화하는 원리를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먼저 태극(太極)에서 음양(陰陽)으로 음양에서 사상(四相)이 생성되는 과정을 읊고 있다. 사상(四相)이 나뉘어 팔괘가 생성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도 하다. 팔괘가 이루어져야 낮째 연에서 묘사하였듯이 한해의 시작인 동지(冬至)를 뜻하는 복괘(復卦)가 생긴다. 이 복괘가 12소식괘(消息卦) 가운데 그 처음으로 동짓날 자시반(子時半)에 생겨난다.

첫째 연에서 여섯째 연까지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는 우주의 현상을 묘사하였다면, 아래의 일곱째 연에서 열두째 연까지는 우주의 운행이 동짓날이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연에서 여섯째 연까지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우주의 운행을 묘사한 것이라면 일곱째 연에서 열두째 연까지는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자연 현상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먼저 그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馥六管之飛灰	여섯 율관에서 갈대 재 날리고,
景一線兮添度	바느질 하는 일이 한층 늘어나.
稍玄冥之弛威	현명한 위엄이 점차 느슨해지고,
始水師之讓事	얼음 신령 비로소 일 넘겨주네.
端乾心之發仁	천심이 인을 퍼는 실마리 되고,
漸坤軸之升氣	땅의 굴대 조금씩 기운이 솟네.
默一元之動氣	일원의 기운 고요히 움직이건만,
彙衆萌之生意	많은 싹에 생기가 모여드누나.
芸始芽兮荔將挺	운초 싹틀 때 여초(荔草) 움돋아,
首萬卉而迓候	온갖 초목 앞에서 절기를 맞네.
柳思舒兮梅欲綻	버들가지 움터 나고 매화 피어,
咸就新而替舊	모두 새롭게 하여 옛 것 바꾸네.

일곱째 연에서 열두째 연까지는 동지에서부터 우주가 운행이 하면서 자연계의 변화하는 양상을 시간적 순차에 따라 묘사하고 있다. 첫째 연에서 여섯째 연까지가 추상적인 현상을 묘사하였다면 일곱째 연에서 열두째 연까지는 구체적인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일곱째 연에서 자아가 여섯 율관[六律] 가운데 황중

(黃鍾) 율관에서 재가 날린다.<sup>7)</sup> 고 하였다. 황중율관에서 재가 날린다는 말은 동짓달이 되었다는 말이다. 동짓날 낮이 가장 짧다. 동지가 지나면 몸으로는 느끼기 어렵지만 낮이 점점 길어진다. 낮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할 일이 점점 늘어난다. 그 가운데 궁중 여인들이 바느질 할 일도 조금씩 늘어난다. 당나라 두보의 「동지 이틀 뒤[小至]」라는 시에도, “수놓는 오색 무늬 옷감에는 가는 실이 더 늘어나고, 갈대의 재 채운 여섯 관에는 날리는 재가 들썩이네.”<sup>8)</sup>라고 읊은 구절이 있다.

여덟째 연에서는 현명(玄冥)한 위엄이 점점 느슨하여 간다고 하였다. 현명은 겨울 귀신<sup>9)</sup>이며 물을 관장하는 귀신[水神]이기도 하다.<sup>10)</sup> 오행(五行) 가운데 계절로 겨울에 해당하는 것이 수(水)이다. 오방(五方)으로는 북방(北方), 오상(五常)으로는 지(智)에 해당한다. 동지부터는 맹위(猛威)를 떨치던 겨울의 기세가 서서히 꺾여 간다. 양(陽)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음기가 물러나고 양기가 들어오면 날씨가 점점 따뜻하여 간다. 아홉째 연의 출구(出句)에서 읊고 있는 것처럼 봄이 다가온다. 천심(天心)이 인(仁)을 향하여 간다고 하였다. 오상에서 인(仁)은 오행으로는 목(木), 오방으로는 동(東), 계절로는 봄에 해당한다. 봄이 되니 대구(對句)에서 묘사한 것처럼 땅속의 얼음이 녹아 땅이 풀리기 시작한다.

7) 십이율(十二律) 가운데 양성(陽聲)에 속하는 여섯 가지 음(音)을 육률(六律)이라 하는데, 곧 황중(黃鍾)·태주(大簇)·고신(姑洗)·유빈(蕤賓)·이칙(夷則)·무역(無射)이다. 이 가운데 황중(黃鍾)은 율력(律曆)으로 음력11월을 가리킨다. 십이율(十二律) 가운데 음성(陰聲)에 속하는 여섯 가지 음(音)을 육려(六呂) 또는 육동(六同)이라 하는데, 곧 협중(夾鍾)·중려(仲呂)·임종(林鍾)·남려(南呂)·응중(應鍾)·대려(大呂)이다.

또 절후(節候)를 살피는 법이 수록되어 있는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갈대 속의 얇은 막을 태워 재로 만든 뒤 그것을 각각 율呂(律呂)에 해당되는 여섯 개의 옥관(玉琯) 내단(內端)에다 넣어 두면 그 절후에 맞춰 재가 날아가는 데, 동지에는 황중(黃鍾) 율관(律管)의 재가 난다고 하였다.

8) “刺繡五紋添弱線 吹葭六琯動飛灰” 杜甫, 『杜少陵詩集』 卷18, 「小至」.

9) 『예기』 「월령(月令)」 편에 “겨울철의 상제(上帝)는 전옥(顛頤)이요, 그 귀신은 현명이다.”라 하고 있다.

10) 최치원의 「오방문에 제사지내는 글(祭五方文)」(『桂苑筆耕』 卷16)에, “목정(木正)은 구망(句芒)이라 하고 화정(火正)은 축융(祝融)이라 하며, 금정(金正)은 옥수(蓐收)라 하고 수정(水正)은 현명(玄冥)이라 하며, 토정(土正)은 후토(後土)라 한다[木正曰句芒, 火正曰祝融, 金正曰蓐收, 水正曰玄冥, 土正曰后土.]”고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모두 열째 연에서 묘사한 것처럼 일원(一元), 곧 양기(陽氣)가 고요히 움직였던 결과이다. 일원은 곧 양기(陽氣)가 처음 생겨나는 복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연에서 아홉째 연까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우주의 현상을 묘사한 것이라면 열째 연에서부터 열두째 연까지는 동지 이후 양기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앞의 것이 하늘[天]이라면 뒤의 것은 땅[地]의 현상이다.

본체로 본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또는 삼극(三極) 가운데 이 도입부에서는 하늘과 땅에 나타나거나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하늘과 땅의 운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분리, 또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융합 또는 연속하고 있다. 열째 연과 열한째 연에서도 봄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현상을 묘사하였다. 겨울이 지나 봄이 되니 식물에 움이 돋으려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氣)가 흐르는 것은 하늘의 운행이요, 초목에 싹이 나는 것은 땅의 현상이다. 운초(芸草)와 여초(荔草)에 싹이 나는 것이 하늘의 기가 사물에 흐르기 때문이다. 이는 일원(一元)이 운행하여 온갖 초목에 싹이 나고 움이 돋는다. 열두째 연의 버들가지와 매화도 이 범주 안에 든다.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지나가고 봄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모두 새롭게 바뀌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아의 자연관 내지 우주관을 알 수 있다. 자아의 세계관, 또는 우주관이 천지인의 삼재(三才)의 합일(合一), 곧 천인합일관(天人合一觀)이다.

## 4.2. 전개부(展開部)

이 전개부는 다시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구성은 각 단락이 6연으로 되어 있다. 이 전개부 전체가 30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단락이 6연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단락 안에 자아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지와 사방의 운행과 오행의 생성이 우연(偶然)이 아니라는 것을 이 전개부의 구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4.2.1. 육합(六舍)의 운행과 영축(盈廩)의 이치

이 단락에서는 동지 때에 육합(六舍)이 운행하면서 인간세계에 나타나는 현

상을 묘사하고 있다. 먼저 그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雷鼓夜動於圜丘	한밤중에 천둥소리 세상 울리니,
奏雲和之遠響	거문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네.
玉佩朝趨於紫殿	옥을 찬 신하 궁중에서 조회하며,
賀君道之益長	왕도 더욱 유장함을 하례한다네.
斯一歲之歷元	이 동지 한 해 역수의 으뜸이니,
日三百之是初	삼백 예순 날 한 해의 시작이네.
噫天地之交泰	아! 하늘땅 엇갈려 태괘가 되매,
兩儀互其升降	음양이 번갈아 오르내리게 되네.
陰始孽於夏至	음(陰)이 하지 때 처음 생겨나서,
十月之交極壯	시월이 되면 가장 세차게 된다네.
互上下之固閉	아래 위 모두 서로 굳게 닫히니,
陽和幾乎剝喪	양기(陽氣)가 거의 다 사라졌다네.

이 단락에서는 동지에 일어나는 우주의 현상에 대하여 자아가 다시 한 번 묘사하고 있다. 이 단락은 전개부 가운데 서론부분에 해당한다. 자아가 동지를 맞아 변화하는 대자연의 정황을 축약하여 묘사하고 있다. 첫째 연에서, 자아가 천둥소리가 한밤중에 울려 한밤중의 고요함을 깨트린다고 하였다. 한밤중은 말할 것도 없이 동짓날 밤이다. 천둥소리가 동짓날 밤에 날 리가 없지만, 자아가 이 천둥소리에 놀란다고 하였다. 여기서 천둥소리는 천지개벽을 알리는 신호라 할 수 있다. 환구(圜丘), 곧 온 세상이 개벽한다. 천지가 개벽하는 데 그 조짐이 나쁘지 않다. 대구에서 자아가 거문고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거문고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다. 궁중의 아악(雅樂)에 쓰이는 악기 가운데 이 거문고가 들어 있다. 그 유래가 백아(伯牙)와 종자기(鍾子期)의 고사에 있지만, 고고한 선비들도 거문고를 벗으로 삼은 사람이 많이 있다. 둘째 연에서, 옥패(玉佩)하고 관리들이 궁중으로 모여들어 임금께 하례(賀禮)한다. 신라들이 임금에게 하례하는 내용이 대구에 나온다. 임금이 왕도(王道)를 영원히 펼치라는 것[王道悠長]이다. 왕도유장이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이 임금에

대한 장래의 희망이다. 둘째 연과 셋째 연의 결구는 인과관계로 이루어졌다. 결과가 먼저 나오고 그 원인이 뒤에 나온다. 결과는 옥을 찬 신하들이 궁중에 모여 임금께 하례하는 것이요, 원인은 동지가 360일 한 해 역수(曆數)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자아가 동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부터 여섯째 연에서는 동지 전까지 변화하는 소식(消息)의 이치를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하늘과 땅이 엇갈린다고 하였다. 하늘이 밑에 있고 땅 위에 있는 형상이 지천(地天) 태괘(泰卦)이다. 이 괘는 삼양지월, 곧 정월달이다. 다섯째 단락에서 음이 하지 때 가장 왕성한 것은 천풍 구(姤)괘요, 음이 가장 세차게 되는 10월은 중지(重地) 곤괘(坤卦)가 된다. 이때가 되면 여섯째 연에서 묘사하고 있듯이 양기가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그만큼 양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동지(冬至)가 중요하게 된다. 이처럼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가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뒤에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아의 주장이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

#### 4.2.2. 소식(消息)을 통한 동지의 의미

이 단락에서는 자아가 동지를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자연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그 묘사 방법은 시간적 순차에 따랐다. 그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然碩果之不食	그러나 종자할 씨 먹지는 않아,
睽一脈於一夜	하루 밤에 한 줄기 조짐 있네.
噓微焰於寒爐	화로에 남은 불씨 입김 불어서,
起羣伏於陰罅	음기 틈 사그라진 양기 일으켜.
二之日兮漸陽	2월이 되어 양기 점점 감돌고,
越春三之和煦	3월 봄 되자 날씨 따뜻해지네.
芸發生而長養	운초(芸草) 돋아나 부쩍 자라고,
藹元氣之流布	자욱하여 원기 두루 펼친다네.
覬諸陽之著散	모든 양이 나타났다 사라지니,
原權輿之自是	원래 그 시작 여기서 비롯됐네.

偉天心之於穆      위대하다 하늘마음 심오하심이,  
 信行健而不已      굳건히 운행하여 그침이 없다네.

이 단락에서의 핵심은 첫째 연이다. 자아가 이 단락에서 ‘큰 과일은 먹이지 않는다[碩果不食]’는 『주역』의 23번째 산지(山地) 박괘(剝卦)의 상구(上九) 효사(爻辭)를 먼저 용사하였다. 박괘의 상구가 뒤집히면 복괘(復卦)의 초구(初九)가 된다. 박괘와 복괘는 도전괘(倒顛卦)이기 때문에 뒤집을 수 있다. 정이(程頤)가 『역전(易傳)』에서는 “여러 양(陽)이 사라져 이미 다하고 오직 상구(上九) 한 효(爻)만이 남았으니, 큰 과실을 먹지 않아 다시 생겨날 이치를 보는 것과 같다.”<sup>11)</sup> 고 하였다. 대구(對句)에서 하룻밤에 한 줄기 조짐이 있었다고 한 것은 박괘(剝卦)에서 양이 깎이면 곤괘(坤卦)가 되고 양이 오면 복괘가 된다. 양이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아래에서 생겨났다. 여기서 양은 군자이고 음은 소인이다.<sup>12)</sup> 복괘에서 양이 하나 생겨나는 것은 군자가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둘째 연과 같이 사그라져 가는 화로의 불씨에 입김을 불어넣어 양기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

첫째 연이 변화하는 현상이라면 둘째 연은 이 변해가는 자연의 운행이다. 첫째 연의 출구가 양월(陽月)인 시월 그믐날이요, 첫째 연의 대구(對句)와 둘째 연은 일양지월(一陽之月)인 동짓달 초하루이다. 셋째 연의 출구는 이양지월(二陽之月)인 선달, 대구(對句)는 삼양지월(三陽之月)인 정월(正月) 이후에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묘사하였다. 넷째 연은 다시 셋째 연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곧 운초가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는 계절인 봄이 찾아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였다. 다섯째 연은 둘째·셋째·넷째 연이 나타나게 된 이치를 부연하고 있어 맨 처음 연과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동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자아가

11) “諸陽消剝已盡，獨有上九一爻尚存，如碩大之果不見食，將見復生之理。”

12) “한 양(陽)이 위에 있어 박(剝)이 다하지 않았는데 다시 낳지 못하니, 군자(君子)가 위에 있으면 여러 음(陰)에게 실리게 되고, 소인(小人)이 있으면 위가 극도로 깎여 스스로 덮어주지 못하여 다시는 ‘석과득여(碩果得與)’의 상(象)이 없게 된다. 상(象)을 취함이 이미 분명하고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의 점(占)이 같지 않으니, 성인(聖人)의 심정을 더욱 잘 알 수 있다.[一陽在上，剝未盡而能復生，君子在上，則爲衆陰所載。小人居之，則剝極於上，自失所覆而无復碩果得與之象矣。取象既明，而君子小人其占不同，聖人之情，益可見矣.]”위와 같은 곳, 朱熹의 「本義」 참조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이 단락은 첫째 연에서 자아가 하고 싶은 말을 제시하고 그 중간 연들은 시간적 순차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다섯째 연을 다시 첫 번째 연과 연결하여 독자들에게 동지(冬至)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가 『주역』의 박괘(剝卦)에서 복괘(復卦)로 바뀌는 이치를 먼저 묘사하였다. 그 뒤 효(爻)의 소장(消長)에 따라 괘가 변하며 1년 12달 또한 이 괘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여섯째 연에서 자아가 천심(天心)이 심오하여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구절은 『시경』의 “야 하늘의 명이, 심원하여 그치지 않네.”<sup>13)</sup>에서 따온 말이다. 천심(天心)은 천명(天命)이요, 천도(天道)이다.<sup>14)</sup> 이 천심은 또는 천심은 사물(事物)이 명을 부여받은 상태가 아니라, 아직 사물에 부여하기 이전의 명(命)을 가리킨다. 사람에게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천명은 영원하며 언제나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는 것이 성(誠)이요 신(信)이다. 이어서 전개부 세 번째 단락의 구성과 의미를 고찰하기로 한다.

#### 4.2.3. 천심(天心)과 인심(人心)의 합일(合一)

이 단락 역시 6연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 연을 보면 ‘지(之)’, ‘이(而)’, ‘어(於)’자가 들어가 각 연의 글자 수를 맞추고 있다. 첫째와 다섯째 연에는 출구와 대구에 ‘지(之)’자가 있고, 넷째 연에는 ‘어(於)’, 여섯째 연에는 ‘이(而)’가 두 번, 둘째와 셋째 연에서는 대구에만 ‘어(於)’자가 나와 글자 수와 리듬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에서 그만큼 허사의 사용이 많다. 이 허사가 단순히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을 잇는 역할을 한다. 크게 보면 이 단락의 구성 역시 자아가 먼저 한 명제(命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13) 『시경』, 주송(周頌), 「유천지명편(維天之命篇)」에, “야 하늘의 명이, 심원하여 그치지 않네.[維天之命 於穆不已]”라는 구절이 있다.

14) 위의 시에 대한 주자(朱子)의 집주(集註)에, “천명은 천도이다. 불이(不已)는 다함이 없음을 말한다[天命卽天道也, 不已言無窮也].”라고 하였다.

感消長之有數	소장하는 주기 있는 줄 알아서,
悟義理之無窮	의리가 끝이 없음을 깨달으리라.
惟人具此健順	사람만이 이 건순을 갖추었나니,
配乾元於性中	본성 가운데 건원이 합한다네.
嗟物累之交蔽	아! 양심이 사물에 덮여 가리면,
鮮不至於牾亡	물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어.
窮陰凝閉於心天	궁음이 하늘마음을 꼭 막아버려,
慾波氷沍於方塘	욕심 물결 못물을 꽁꽁 얼게 해.
然虛靈之本然	하지만 욕심 없는 깨끗한 본성에,
尙一端之不滅	그래도 희망의 실마리 남아 있네.
乘夜氣而善萌	밤기운을 타고서 선의 싹 틔워서,
見入井而怵惕	우물 드는 아일 보고 슬퍼하였네.

첫째 연에서 양과 음이 번갈아 갈마든다. 양기가 왕성하면 이것이 점점 시들게 된다. 양기(陽氣)가 사그라지는 것에 비례하여 음기(陰氣)가 성하여 간다. 양기가 선(善)·양심(良心)이라면, 음기는 악(惡)·불량심(不良心)이다. 천심(天心)은 천명(天命)이다. 천명이 변화 생성하는 이치를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둘째 연에서 자아가 사람만이 건순(健順)을 갖추었다.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다는 것은 본성(本性)을 지키는 것이다. 사람이 본성을 지켜야 건원(乾元)에 부합한다. 건원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존귀한 존재이다.

비록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이지만 욕심 없이 첫째 연을 잘 깨달으면 둘째 연과 같이 자연스레 천심에 부합한다. 셋째 연에서처럼 양심이 가리면 사욕이 일어나게 된다. 곧 곡망(罔亡)<sup>15)</sup>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곡(罔)’은 죄인에게 채우는 질곡(桎梏)의 곡(罔)과 같다. 죄인에게 질곡을 채우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이는 양심(良心)이 물욕에 얽매는 것과 같다. 사람이 양심을 잃어버리면 다섯째 연과 같이 궁음이 천심을 막아버리고 욕심에 운세가 막혀버리게 된다. 둘째 연에서 다섯째 연까지를 보면, 자아가 첫째 연을 목표로 설정하여 놓고, 천리에 순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다

15) 『孟子』 卷11, 告子 上篇, 「牛山之木」 章 참조



르게 나타난다고 한다. 천심은 변함이 없지만 인심은 변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아가 여섯째 연에서 다시 이를 환기시킨다. 출구에서 자아가 허령(虛靈)한 본연지성(本然之性)을 굳게 지켜야 첫째 연의 천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다섯째 연의 대구(對句)에서 자아가 희망적이다. 자아가 첫째 연의 천리를 다섯째 연의 인문에 결부시켰다. 인간이 자연법칙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명제(命題)를 두고 이에 긍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 인간이 긍정적 삶을 살아가려면 천리와 인문이 합일되어야 한다. 여섯째 연에서 천리를 따라 인간에 나타나는 것이 착한 마음, 곧 사단(四端)이라 하였다. 이 사단 가운데 자아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출척(怵惕)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사람에게서 차마 남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sup>16)</sup> 측은지심이 인(仁)의 단(端), 곧 어진 마음(仁心)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건지는 것도 이 인심(仁心), 또는 양심(良心)이 발동하였기 때문이다. 이 단락이 첫째 단락과 서로 연결된다. 자연의 운행하는 법칙을 알아 인간이 어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란다.

#### 4.2.4. 자연의 동지(冬至)와 마음의 동지

이 단락에서는 동지(冬至)의 의미와 인간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 환기(喚起)시킨다. 자아가 사람이 허령(虛靈) 지각(知覺)을 통하여 양심(良心)을 가지는 것이 동지의 의의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茲心上之至日	이것이 마음의 동지(冬至)이거니,
盡反身而省飭	어찌 자신 돌이켜 삼가지 않으리.
苟因此而善保	진실로 이를 따라 잘 보전한다면,
豈牛山之濯如	어찌 우산이 헹벳을 수 있으리오.
竟條暢而四達	마침내 활짝 펼쳐 사방에 이르며,
先天下而有餘	세상에 앞장서서 넉넉하게 되리라.

16) “사람들은 모두 사람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人皆有不可忍人之心).” 『맹자』 권3, 公孫丑 上篇.

觸一理而長之	한 이치에 접촉하여 잘 기른다면,
亦可驗於邦國	나라에도 또한 징험 할 수 있으리.
當世道之極否	세상의 도리가 지극히 어긋난 때,
汨淹昧而昏塞	백성들이 어리석어 어둠에 묻혔네.
紛陰類之用事	어지러이 엉킴한 무리 일 꾸미니,
慨北風之其涼	싸늘한 북풍이 안타깝기만 하다네.

위 단락을 보면 다섯째와 여섯째 단락은 자아가 처한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그다지 밝지 못하다. 그 이유가 세상에 도리가 어긋났고, 백성들이 무지하며, 간사한 무리들이 나쁜 짓을 한다. 따라서 세상의 분위기가 차가운 북풍이 불어오듯 싸늘하다. 이 전체는 동지가 오기 전의 순음(純陰)으로 이루어진 10월의 괘상(卦象), 곧 중지(重地) 곤괘(坤卦)의 분위기와 같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아가 첫째 연에서 넷째 연까지 제시하고 있다. 첫째 연에서는 동지의 의미와 같이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요, 둘째 연에서는 자신의 양심(良心)을 보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양심을 보존하여야 할 사람이 다름 아닌 임금이다. 이는 둘째연의 대구에서 『맹자』에 나오는 ‘우산지목(牛山之木)’의 고사를 다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아가 간접적으로 임금이 양심을 가지고 인의 정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연과 둘째 연에서처럼 임금이 마음을 삼가고, 양심을 가지고 인의정치를 베풀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셋째 연과 넷째 연에 묘사하고 있다. 나라에 인정(仁政)을 베풀면 세상이 넉넉하게 되는 것을 자아가 동지의 의미와 결부시켰다.

넷째 연은 다시 첫째 연의 의미와 서로 통한다. 이를 보면 자아가 평면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연에서 넷째 연까지를 보면 자아가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다섯째와 여섯째 연에서처럼 세상의 질서가 어긋나 현재는 동지 때처럼 냉혹하지만, 동지 때 한 양(陽)이 생기듯 앞으로는 서서히 질서가 잡힐 것이라 자아가 생각한다. 이것이 자아의 바람이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자아가 세상을 보는 눈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단락의 구성 방법은 먼저 해결 방법

을 앞세우고 뒤에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해결 방법은 일반적인 것이요 당시 상황은 특수한 것이다. 곧, 자아가 자신의 주장을 연역적(演繹的)으로 드러내고 있다.

#### 4.2.5. 훈리자(訓理者)로서의 천인합일(天人合一)

학자들이 하늘에 대한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창창자(蒼蒼者), 주재자(主宰者), 훈리자(訓理者)가 그것이다. 창창자는 눈에 보이는 푸른 하늘의 의미요, 주재자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늘이요, 훈리자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하늘이다. 일반적으로 유학자들은 명령을 받는 하늘이 아니라 교훈을 얻는 하늘로 생각하였다. 이는 곧 사람과 하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융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봉(岐峯) 백광홍도 이 작품의 곳곳에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단락의 내용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時有人其挺起	이때에 어떤 사람 떨치고 일어나,
稟正氣之純綱	바른 기운 옳은 도리를 부여받아.
開一曝於十寒	열흘 추위에 하루 별들게 하니,
庶陽和之可回	못 양기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네.
致國步於明昌	나라 운명이 흰히 밝게 되게 하여,
絕陰沴之爲災	음기가 재앙 부리지 못하게 하리.
是則君子之類進兮	이야말로 군자들이 나아갈 곳이니,
固陽生之一始	진실로 양이 돌기 시작하는 시점.
諒天人之一揆	참으로 하늘과 사람 한 이치이니,
盍審幾於彼此	어찌 이것저것 살피지 않으리오.
肆先王之謹始	이 때문에 선왕들 시작을 삼가서,
每閉關於是日	언제나 동짓날에는 관문 닫았다네.

앞의 단락에서 자아가 그가 처한 현실세계를 사도(邪道)가 판을 치는 옳지 않은 세계로 보았다. 날씨로 말하면 매섭게 추운 겨울과 같은 세상이라 어쩌면 자아가 생각하는 세상이 산지(山地) 박괘(剝卦)의 형상이라 하여도 무방하다. 이 단락에서는 이 박괘가 뒤집혀 새로운 괘가 생겼다. 그것이 복괘(復卦)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추운 때에는 벌써 양기가 들어와 앞으로 날씨가 따뜻하여 간다. 세상에 사도(邪道)가 판을 칠 때는 머잖아 이 사도가 서서히 바로잡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단락에서 사도가 판을 쳤다면 이 단락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점점 줄어드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첫째 단락에서 자아가 이 때라 하였다. 이때는 말할 것도 없이 동지 때이다. 이 동지 때 우주의 운세도 양기가 싹트기 시작한다. 양기가 바른 기운이다. 떨치고 일어난다는 말의 주체가 하늘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다. 정기(挺起)의 주체가 하늘이라면 하늘이 음기를 물리치고 양기를 떨치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 주체가 사람이라면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떨쳐버리고 착한 생각이나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대구(對句)에서 자아가 정기(正氣)의 순강(純綱)을 부여 받는다고 하였다. 정(正)과 순(純)은 서로 통한다. 생각이나 행동이 바른 사람은 마음이 순수하다. 순(純)자 뒤에 강(綱)이 있으니 기강(紀綱)이 바로잡혔다. 사람에게 기강이 되는 것이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다.

둘째 연에서는 첫째 연의 현상에 대하여 자아의 견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출구에서는 자연 현상을, 대구에서는 자아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자연 현상은 오랜 추위에 잠시 별이 드는 것이요, 자아의 바람은 여러 양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여기서 양기는 양심(良心)이다. 음기(陰氣)가 사라지고 양기(陽氣)가 들어오면 나라가 흰히 밝아져 음기가 재앙을 몰고 오는 것을 물리친다고 하였다.

먼저 넷째 연의 대구를 보면, 양이 돋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하였다. 양기, 곧 양심을 가지는 것이 출구의 군자가 나아갈 방향이다. 자아가 미래에 할 일을 먼저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그것은 자아가 출구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서이다. 다섯째 연 출구의 내용이 이 단락의 핵심이다. 천인일규(天人一揆)가 그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천인합일(天人合一)이다. 자연의 흐름을 보고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매사를 살펴서 신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왕(先王)들이 동짓날이면 관문(關門)을 닫았다고 한다. 관문을 닫는다는 것이 외부와의 단절이다. 이는 스스로의 근신(勤慎)을 의미한다. 근신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하늘과 인간,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서로 결부시켜 구

절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아의 생각이 천인합일의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3. 결말부(結末部)

앞의 서두부(序頭部)에서 동지에 해당하는 괘(卦)인 지뢰(地雷) 복괘(復卦)에 대하여 우주의 운행을 묘사하였다면, 이 결말부에는 동지를 맞아 임금에 대한 자아의 당부, 자아의 각오, 임금에 대한 송축을 묘사하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敬順時而撫事	때를 따라 공경하여 일 처리하면,
成歲功而不忒	틀림없이 한 해의 공 이루시리니.
願聖上之體元	성상께서 원기(元氣) 체득하시어,
茲乾乾而夕惕	밤낮으로 나라를 위해 힘쓰소서.
察進退於羲易	『주역』에서 나고 들을 잘 살피서,
法欽若於帝典	요순의 법도를 공경히 본받으소서.
念一心之操存	한 마음을 잡아 지킴 유념하시어,
明峻德乎勉勉	높은 덕을 밝히심에 힘 쏟으소서.
微臣亦除昌辰	미천한 제 또한 성스런 임금 만나,
欣陽德之昭融	밝은 덕의 예지(徽智) 기뻐하오리다.
嘉履長而納慶	이 동짓날 경사(慶事)를 들이시라,
頌康衢之祥風	강구연월 상서로움을 송축하나이다.

자아가 천리에서 인문으로 그 묘사 대상을 옮겼다. 첫 번째 연에서 자아가 임금에 바라는 것이 핵심어가 순시(順時)와 불특(不忒)이다. 순시는 때에 따른 것이고, 불특은 사특한 마음이 없는 것이다. 하늘의 운세에 따라 나쁜 마음을 먹지 않고 순리대로 일을 처리하면[撫事] 한해의 공을 이룬다. 한해의 성공은 백성들을 위하여 펼치는 정사(政事)를 잘 이루는 것이다. 앞의 출구가 조건이라면 뒤의 대구가 결과이다. 임금이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두 번째 연은 이와 조금 다르다. 이 연에서는 자아가 임금에게 바라는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출구(出句)에서는 임금이 원기를 체득하는 것이고 대구(對句)에서는 이 원기(元氣)를 체득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다. 이 연은 첫 번째 연의 결과와는 달리 실천하여야 할 덕목을 순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에서도 용사를 통하여 자아가 임금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연 출구(出句)의 চাল진퇴(察進退)는 『주역』의 소식(消息)<sup>17)</sup>에서, 대구(對句)의 흠약어제전(欽若於帝典)은 『서경』의 흠약호천(欽若昊天)<sup>18)</sup>에서, 네 번째 연 출구의 조심존양(操心存養)<sup>19)</sup>은 『맹자』의 존심양성(存心養性)에서, 대구의 극명준덕(克明峻德)<sup>20)</sup>은 『서경』 「요전(堯典)」에서 각각 용사하였다. 자아가 이 용사들을 통하여 그 자신이 바라는 이상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천리(天理)에 따라 왕도정치(王道政治)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금이 먼저 존심양성(存心養性)하여야 한다. 임금이 존심양성하여야 나라에 큰 덕을 밝힐 수 있으며, 큰 덕을 밝혀야 모든 백성과 친할 수 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연까지는 자아가 임금에게 바라는 희망사항을 드러내고 있다.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연에서는 네 번째 연까지의 조건을 임금이 충족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다섯째와 여섯 번째 연에서 용사를 통하여 자신의 지향의식을 표출하였다. 성스러운 임금을 뜻하는 창신(昌辰), 임금의 예지를 뜻하는 소용(昭融), 동지를 뜻하는 이장(履長)<sup>21)</sup>, 태평성대를

17) “해가 중천(中天)에 있으면 기울고 달은 차면 먹히니, 천지의 성쇠(盛衰)도 때에 따라 소식(消息)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며 하물며 귀신에 있어서랴! 日中則昃, 月盈則食. 天地盈虛, 與時消息, 而況於人乎, 況於鬼神乎.” 『周易傳義』 卷19, 豐卦辭 本義.

18) “이에 희씨(羲氏)·화씨(和氏)에게 명하여 하늘을 공경히 따라서 해와 달과 별을 책력으로 기록하고 관찰하여 백성들의 농사철을 공경히 주게 하셨다[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書經集傳』 卷1, 堯典 第3章.

19) “그 마음을 보존하여 그 성(性)을 기르는 것이대[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孟子』 卷13, 盡心 上篇.

20) “큰 덕을 밝혀 구족(九族)을 친하게 하시니 구족이 이미 화목하거늘, 백성을 고루 밝히시니 백성이 덕을 밝히며, 온 나라를 합하여 고르게 하시니 백성들 변하여 이에 맞추었다[克明峻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書經集傳』 卷1, 堯典 第2章.

21) 이장은 동지(冬至)를 가리킨다. 동지에는 해 그림자가 가장 길고 십이율(十二律) 중 동짓달에 해당하는 황중(黃鐘)의 율관(律管)이 가장 길기 때문에 ‘긴 것을 밝는다는 뜻으로 이장이라 하였다.’(『玉燭寶典』). 삼국 시대 조식(曹植)의 「동지헌말리송표(冬至獻禮履頌表)」에 “사방이 두루 평안하여 만물이 소생하니 아세(亞歲·동지)에 상서를 맞이해 이장의 경사를 받도다.[四方交泰, 萬物昭蘇. 亞歲迎祥, 履長納慶.]” 하였다.

뜻하는 강구(康衢)<sup>22</sup> 등이 그것이다. 한해의 시작인 동지를 맞아 자아가 임금을 칭송하면서 그 임금이 인의(仁義) 정치를 베풀어 태평성대를 이루기 바라고 있다. 이 단락은 결말부담게 자아가 먼저 임금에게 당부하고 있고, 이어서 그의 각오와 임금에 대한 송축을 그려내고 있다.

## 5. 맺음말

본고는 조선 중기의 학자인 백광홍(白光弘, 1522~1556)의 「동지부(冬至賦)」에 나타난 구성과 의미, 자아의 지향의식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는다.

이 「冬至賦」은 1552년 임금의 명에 의하여 지었다. 따라서 백광홍이 자발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다. 이 「동지부」의 형식적 특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이 부는 과부(科賦)의 형태로 『주역』의 이론에 따라 48연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한 연의 글자 수는 12자가 기본이다. 이는 12소식(消息)과 관련 있다. 또 허사(虛辭)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셋째 이 부에는 일정한 운(韻)이 없고 한 구(句)의 평측(平仄)도 일정하지 않다. 다섯째 이 부(賦)는 크게는 3단 구성이지만, 세분(細分)하면 7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동지를 의미하는 지뢰(地雷) 복괘(復卦)의 칠일내복(七日乃復)의 의미를 그 밑바닥에 깔고 있다.

이 「동지부」의 도입부는 십이소식(十二消息)과 우주(宇宙)의 운행(運行)을 묘사하였다. 이 도입부는 십이소식(十二消息)에 맞추어 12연으로 구성하였다. 1년 12달의 생성 변화의 이치가 이 단락에 들어 있다. 전개부는 다시 다섯 단락으로 구분하였다. 한 단락은 6연으로 이루어져 육합(六合)의 원리를 담고 있다. 첫째 단락은 육합(六合)의 운행과 영측(盈廁)의 이치, 둘째 단락은 소식(消息)을 통한 동지의 의미, 셋째 단락은 천심(天心)과 인심(人心)의 합일(合一), 넷째 단락은

22) 강구연월(康衢煙月)은 태평성대를 비유하는 말이다. 강구는 사람의 왕래가 많은 사통팔달의 큰 길을 이르고, 연월은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추는 모습으로 태평성대의 평화로운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자연의 동지(冬至)와 마음의 동지, 다섯째 단락은 훈리자(訓理者)로서의 하늘과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사람이 허령(虛靈) 지각(知覺)을 통하여 양심(良心)을 가지는 것이 동지의 의의라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하늘과 인간, 자연 현상과 인간사를 서로 결부시켜 구절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자아의 생각이 천일합일의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보편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말부의 구성이 6연으로 되어 있다. 앞의 서두부(序頭部)에서 동지에 해당하는 지뢰(地雷) 복괘(復卦)에 대하여 우주의 운행을 묘사하였다면, 이 결말부에는 동지를 맞아 임금에 대한 자아의 당부, 자아의 각오, 임금에 대한 송축을 묘사하고 있다. 자아가 이 용사들을 통하여 그 자신이 바라는 이상세계, 곧 천리(天理)에 따라 왕도정치(王道政治)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금이 먼저 존심양성(存心養性)하여야 한다. 임금이 존심 양성하여야 나라에 큰 덕을 발휘할 수 있으며, 큰 덕을 밝혀야 모든 백성과 친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부(賦)는 형식에서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 전개가 치밀하다. 단순히 사람들에게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다. 이 작품에는 깊은 철리(哲理)를 담고 있다. 대자연의 운행에 따라 인간이 가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작품이 교육면에서도 그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白光弘, 『岐峯集』(『韓國文集叢刊』)
- 曹明綱, 『賦學概論』, 上海: 考籍出版社, 1998.
- 馬稷高, 『歷代辭賦研究史料概述』, 北京: 中華書局出版社, 2005.
- 熊良智 主編, 『辭賦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2006.
- 孫 晶, 『漢代辭賦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7.
- 李新宇, 『元代辭賦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 岐峯 白光弘 記念事業會, 岐峯先生 學術 發表會, 2004.
- 장희구, 「岐峯 白光弘의 詩文學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 1994.
- 백수인, 「岐峯 白光弘의 生涯와 文學世界」, 岐峯 白光弘 記念事業會, 2004.
- 허경숙, 「白光弘의 現實認識과 文學世界」, 『溫知論叢』 18, 溫知學會, 2008.
- 김민나, 「先秦兩漢六朝의 賦에 대한 논의 -文心雕龍 詮賦-」, 『중국어문학』 29, 중국어문학회, 2009.

| Abstract |

## A study on the Composition and Meaning of *Baekkwanghong's the poetical prose of the winter solstice*

Lee, Ku-eui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meaning of the book and the sense of the orientation of the self of *Baek Gwang-hong* (1522-15561) who was a scholar during the mid-Joseon Dynasty. Further, it explores Gwanghong's self-consciousness reflected in *Dongjubu-the poetical prose of the winter solstice*.

This pub was built by the order of the king in 1552. Some of the formal features of this joint venture include: The first part consisted of 48 stanzas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Great books. The second string of characters is based on 12 characters. This is related to 12 growing and declining. In addition, the company is using a lot of vainly. Therefore, this poetical prose is in the form of an government examination. Third, there is no fixed luck in this part and one district's flat side is not constant. Fourth, this part is composed of three layers, but if you break it down, you can divide it into seven sections.

The introduction of the *Dongjubu* describes the twelve-growing and declining and the running of the universe. This introduction consisted of 12 series in accordance with the twelve growing and declining. The logic of the generation change of one year and 12 months is contained in this paragraph. The deployment was again made up of five paragraphs. Each paragraph has six consecutive columns of hexafluoride. The first paragraph describes the operation of a hexapod and the reason for the territorial side, the second paragraph describes the meaning of comradeship through news, the third paragraph describes the unity of the mind and the spirit, and the fourth paragraph describes heaven and earth as the universe that teaches people a lesson. This part emphasizes that it is the significance of a comrade to have a conscience through the perceptuality of the spirit.

The ending consists of six consecutive stanzas. If the earlier part described the operation of the universe on the mine loop, which corresponds to the comrade, this end describes the order of the persona to the king, the determination of the persona, and the eulogy to the king in the comrade was to carry out the politics

of principles of royalty with conscience.

**Key words** : the winter solstice, growing and declining, the universe, warm energy, a good heart, The principles of royalty

